

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(12.21) 모두발언

- 어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70여개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었음
- 먼저, 당초 10월말까지 예정되었으나, 보다 충실한 논의를 위해 2개월 더 혁신위를 운영해 주셨음
 - 특히, 거의 자정까지도 회의를 진행하고, 주말에도 장시간 논의를 거듭하기도 하셨음
 - 금융권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여 권고안을 마련해주신 윤석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혁신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
- 그간 금융당국은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,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
 - 하지만, 혁신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, 여전히 금융부문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많은 상황임
- 특히, 혁신위에서 지적한 대로 과거 사건·사고로 인해 금융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임
 -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함
 - 과거 사건·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을 방지하고,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

- 이번 권고안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금융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,
 - 혁신위 출범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
- 우선 금융당국 쇄신을 위한 금융행정 투명성·책임성 제고에 노력하겠음
 - 금융위 의사록을 내년부터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금융행정을 투명하게 운영
 - 금융위 내부조직도 정책과 집행,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,
 -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新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
 - 또한,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이 12.6일 출범한 만큼, 기획단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
- 인허가 절차·기준 개선, 특화사업자 육성 등을 담은 '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'을 내년 1분기중 마련하여,
 -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금융권에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 시키고,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
-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·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음
 - 7년간 논의되어 온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.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 -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, 사회적금융 활성화,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강화 등 포용적 금융을 적극 추진

-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,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는 만큼
 - 그 취지를 향후 관련 정책 수립·집행시 충분히 감안하여 적극 반영하고,
 -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이 쇄신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
- 끝으로 다시 한 번, 윤석현 위원장님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함